



금융위원회

보도참고자료



보도

배포 후 즉시

배포

2019.8.22.(목)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(02-2100-2530)	담 당 자	서 승 리 사무관 (02-2100-2536)
	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장 경 운(02-3145-7120)		심은섭 핀테크감독팀장 (02-3145-7135)

제 목 : P2P대출을 법제화하여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,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

-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」 국회 정무위 의결

1 주요 경과

□ P2P대출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*하였음

* P2P 누적 대출액 : '16년말 0.6조원 → '19.6월말 6.2조원(잔액 1.8조원)

○ 그간 정부는 '핀테크 성장'과 '투자자 보호'라는 정책목표 조화를 위해 유연한 규율체계인 가이드라인('17.2.27 제정)으로 대응

* 2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(1차 '18.2.27, 2차 '19.1.1)하여 공시 강화, 상환금 분리보관, 자금돌려 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

○ 그러나 법·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, 허위 공시, 투자자금 유용·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

□ 이에 국회에서는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복수의 법안이 발의*되었고,

* 온라인대출중개업법('17.7월 민병두), 온라인대출거래업법('18.2월 김수민)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('18.4월 이진복), 대부업법('18.2월 박광온), 자본시장법('18.8월 박선숙)

○ 업계도 법제화를 통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 지속 제기

□ 이에 금융위는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대안을 마련하였으며,

○ 금일(8.22일), 국회 정무위는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을 의결

2 주요 내용

※ 이하 내용은 국회 법사위 등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

※ 법안소위 주요 논의사항

① P2P업체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최저 자기자본 요건 완화

- * (기존) 10억원 이상으로서 승으로 정하는 금액
→ (수정)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

② P2P업체의 자기자본 연계투자 요건 완화

- * (기존)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 범위에서 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
→ (수정)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

가. 진입제도

- (등록의무)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의무(§5)
→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(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)
 - 최소 자기자본(5억원 이상으로 승규정), 인적·물적 설비, 사업계획 타당성, 임원·대주주,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 규정
 - 등록요건(일부요건 완화) 유지 의무 → 위반시 등록취소 사유

나. 영업행위 규제

- (P2P업체 정보공시) P2P업의 거래구조, P2P업체의 재무·경영 현황,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 공시(§10)
- (금리·수수료)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(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) 수취(§11)
- (금지행위) P2P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,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,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(§12)
 -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'모집금액 80%이하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)' 모집시 '자기자본 내'에서 허용(§12④)

다. P2P금융업 준수사항

- (투자자 보호) P2P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 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
 - ① (정보제공)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, 차입자 정보, 투자정보(수익률, 채권추심 절차 등)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(§22)
 - ② (투자금·상환금 관리) P2P업체 횡령·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P2P업체에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부여(§26)
 - ③ (대출채권 도산절연) P2P업체 도산시 투자자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P2P 대출채권을 P2P업체의 도산과 절연(§28)

- (투자·대출한도) P2P금융의 이용 한도 규제
 - ① (대출한도)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%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(§32①)
 - ② (투자한도) 투자자 투자목적·재산상황, 투자상품 종류,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투자한도 도입(§32②)

- (원리금수취권 양도·양수)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 제도화
 - 해당 연계투자가 이루어진 P2P업체를 통해서만 원리금수취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

- (금융회사 등 투자참여)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%이내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)에서 연계투자 가능

라. 기타

- (협회) 법정협회 설립근거(§37) 및 P2P업체의 협회 가입 의무화(§40)

- (검사·감독) 금융위·금감원에게 검사 및 감독 권한 부여(§42·§43),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의무 부과(§45·§46) 등

-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」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
 -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음

※ 법 공포 후 일정

- (시행일) 법 공포 후 9개월 후부터 시행
 - 다만, 협회 등 관련규정은 공포 후 1년6개월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
- (등록 경과조치 및 특례) 법 시행 후 1년 이내 등록 의무 부과
 - 법 공포 당시 P2P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공포 후 7개월 후부터 등록 신청 가능

- 이 과정에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, 민간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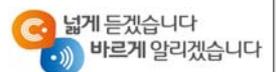
※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

- 등록 요건
 - ① 최소 자기자본 요건(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)
 - ② 자기자본 등의 등록유지 요건
-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관련
 - ①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요건(100분의 80이하 모집시, 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)
 - ② 자기자금 투자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P2P업체 의무사항
- P2P업체 이용한도
 - ① P2P업체 대출한도(대출잔액의 10% 이내)
 - ②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한 투자한도
- 금융기관 등의 P2P 참여 한도(모집금액 40% 이내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 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